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18년 일대일로 지수 발표 ... 싱가포르 등 상위권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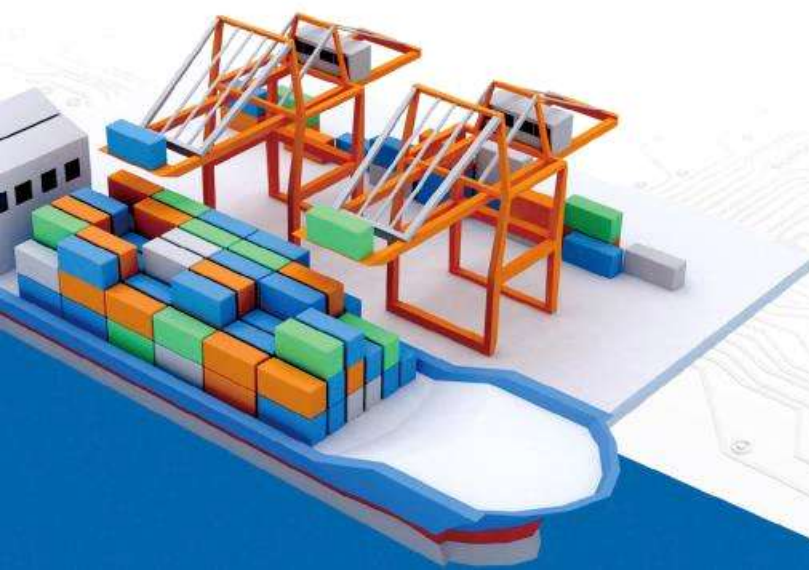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가공식품 수요 급증으로 식품가공기계 시장 연평균 3.9% 성장 전망
2. 알리바바, 홍콩국제공항에 물류센터 설립
3. CMA-CGM, 해상운송에 인공지능(AI) 기술 탑재 위해 노력
4. CMA CGM 신조 LNG 추진선, 로테르담에서 벙커링 계획

명사 스피치

“인류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물자가 이동했고, 그 길을 따라 정치와 경제,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발전했습니다. 길은 ‘연결’이며,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 사른 사람, 서로 다른 경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룹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결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는 평화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물류 영토가 유라시아와 세계로 더욱 넓게 확장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물류는 이제 더욱 빠르고 더욱 촘촘하게 사람과 물자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8. 6. 1. / 제1회 해외한인국제물류포럼 축하 영상메시지)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18년 일대일로 지수 발표 ... 싱가포르 등 상위권 기록

Knight Frank 일대일로 지수 2018 상위 20위권 국가 순위

국가		경제 잠재력	제도적 효율성	인구학적 이점	인프라 개발	시장 접근성	자연재해 회복력
		25%	25%	20%	15%	10%	5%
1	Singapore	48.92	87.69	44.90	78.55	100.00	98.77
2	Qatar	60.10	63.47	57.68	50.84	49.31	100.00
3	United Arab Emirates	48.64	66.52	53.18	62.84	57.01	97.61
4	New Zealand	36.01	98.76	37.41	53.80	34.85	88.49
5	China	56.81	37.17	58.94	54.62	94.86	82.55
6	Malaysia	48.51	58.43	49.42	54.33	62.64	89.39
7	Estonia	35.24	82.40	28.54	56.15	70.42	96.74
8	Bahrain	36.98	44.45	69.03	71.46	50.11	94.83
9	Bhutan	64.78	59.73	57.92	19.71	41.58	87.65
10	South Korea	37.74	70.24	39.03	67.81	46.02	87.82
11	Brunei	55.46	66.61	45.52	28.82	48.94	89.59
12	Israel	38.42	69.01	37.54	52.31	62.56	93.66
13	Oman	36.52	55.12	71.87	45.37	46.92	85.09
14	India	62.40	42.54	49.77	33.83	72.08	79.74
15	Mongolia	52.18	52.02	50.91	19.15	82.41	87.41
16	Maldives	44.41	37.02	69.07	32.43	78.73	95.77
17	Poland	35.68	71.09	32.72	51.24	62.98	87.46
18	Czech Republic	31.42	77.23	33.13	48.50	60.41	87.99
19	Vietnam	52.85	38.03	60.11	38.98	72.99	71.31
20	Lithuania	37.40	76.00	28.00	52.59	46.62	93.77

자료 : www.beltandroad.hktdc.com(검색일 2018.06.11.)

주 : 원시 데이터 출처는 IMF, UN,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 Germanwatch, Knight frank research임

- 중국은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통해 주변 연선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Knight Frank는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연선국가 67개국을 대상으로 6가지 평가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함
 - 6개 평가 기준은 경제 잠재력, 제도적 효율성, 인구학적 이점, 인프라 개발, 시장 접근성 및 자연 재해 회복력 등임
 - 이 평가 기준은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정규화해서 투자 결정에 대한 중요성에 비례해 특정 가중치가 할당된 결과임
- 2018년 일대일로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연합 등이 상위권을 기록함
 -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특히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높은 점수를 받음
 - 싱가포르를 제외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음
- 중동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도전 과제가 반영되어 순위에서 갈라짐



- 아랍 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위권에, 이라크와 예멘은 하위권을 기록함

- 한편 Knight Frank의 아태지역 책임자 케빈 코펠(Kevin Coppel)씨는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비전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며, 이 토대가 되는 인프라 및 투자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 무역 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함

■ 참고자료 : www.beltandroad.hktdc.com/, 2018.6.6.(2018년 6월 11일 검색)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가공식품 수요 급증으로 식품가공기계 시장 연평균 3.9% 성장 전망

- 세계 식품가공기계 시장 규모는 2016년 527억 8,700만 달러에서 향후 6년간('17~'23년) 연평균 3.9%씩 성장해 2023년에는 688억 8,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Allied Market Research(AMR)사에 따르면, 고기, 가공육 및 해산물 가공기계부문이 2016년 시장을 장악했으며, 그 결과 매출기준 이 분야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2/5를 차지함
 - AMR사의 보고서명은 '유형, 운영 모드 및 적용 산업별 식품 가공기계 시장 : 글로벌 기회 분석 및 산업예측 2017~2023(Food Processing Machinery Market by Type, Mode of Operation and Application Industry: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7-2023)'임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은 연평균 3.45~3.80%, 육류 소비량은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양식 변화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품가공기계 수요도 증가함
 - 식품가공기계 시장 규모의 증가 원인은 가공 식품 수요의 급증이 주요 동인으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진 가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리속도가 좀 더 빠른 기계로의 교체 수요도 발생했기 때문임
- 식품 성형기계인 데포지터기(depositor)는 예측 기간(2017~2023년) 내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매출기준 전체 시장의 약 1/4을 차지함
 - 한편 식품 가공 기기 중 압출기계도 믹서, 슬라이서, 냉각장치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연평균 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제빵·제과 부문 가공기계의 수요가 동 기간 연평균 5.9%의 높은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동기간 식품가공기계는 유럽이 주도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식품가공기계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유럽과 북미가 차지했음
 - 독일은 2016년 식품가공기계 및 기계 생산 수요 증가로 유럽에서 26.45%의 점유율을 기록함
 - 2016년 매출 측면에서 브라질의 시장규모가 라틴아메리카·중동·아프리카(LAMEA, Latin America, Middle East and Africa) 시장의 28.39%를 차지함
 - 향후 2023년까지 인도는 연평균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refrigeratedfrozenfood.com, 2018.6.1.; alliedmarketresearch.com, 2018.6.1.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알리바바, 홍콩국제공항에 물류센터 설립

-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의 물류 계열사인 차이나오 네트워크(Cainiao Network)社は 홍콩국제공항에 새로운 물류센터 합작 회사를 설립해 물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차이나오 네트워크社は 중국항공공사(China National Aviation Corp.) 및 YTO 익스프레스(YTO Express)社와 공동으로 동 물류센터 건설에 15억 3,000만 달러를 투자 예정임
- 동 합작 회사에서 차이나오 네트워크社の 지분은 51%, 중국항공공사 및 YTO 익스프레스社は 각각 35%, 14%를 보유하게 될 예정임
- 38만m² 크기로 건설될 동 국제물류센터는 '23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천만 건의 화물 처리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 차이나오 네트워크社は 동 홍콩 물류허브가 자사의 운영 목표인 '72시간 글로벌 배송'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 국제물류센터는 항공화물 처리센터, 분류센터, 주문이행센터, 자동창고기술 및 자동화 온도제어 기능을 보유함
- 차이나오 네트워크社は 이미 홍콩에 파트너社가 운영하는 3개의 글로벌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달 홍콩-벨기에 간의 항공 노선을 추가 개설했는데, 올해 초 항저우와 모스크바 간 전자 상거래 화물을 위한 국제노선을 개설하는 등 글로벌 물류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두바이, 항저우, 쿠알라룸푸르, 리에주 및 모스크바의 세계 5개 거점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음

참고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8.6.6.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CMA-CGM, 해상운송에 인공지능(AI) 기술 탑재 위해 노력

- 글로벌 해운선사인 CMA-CGM 그룹은 해상운송 분야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음
 - CMA-CGM은 작년 9월 차세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인도의 다국적 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또한 올해 1월에는 최초의 창업보육센터인 Ze Box를 프랑스 마르세유에 설립했으며, 입주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함
- CMA-CGM은 올해 초부터 美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신생기업 Shone*과 협력하여 컨테이너선박에 인공지능 시스템 탑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 Shone은 2017년 프랑스 출신 3명의 IT 전문가가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선박에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CMA-CGM은 Shone과의 협업을 통해 컨테이너선박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의사 결정과 해상 안전 관리 또는 조종 지원과 같은 선상 승무원의 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해 Shone은 레이더, 카메라 및 선박위치 확인시스템(AIS) 등 여러 센서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융합해 탐지 정밀도를 높이고 보안 및 충돌 방지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해상 충돌 방지 규정(COLREGs)을 고려해 잠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 CMA-CGM의 CEO인 Rodolphe Saadé씨는 “혁신과 디지털화는 우리의 핵심전략이며, 고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CMA-CGM, ‘CMA CGM collaborates with a startup, Shone, to embed artificial intelligence on board ships’, 2018.6.4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CMA CGM 신조 LNG 추진선, 로테르담에서 벙커링 계획

- 프랑스 선사 CMA CGM은 22,000 TEU 급 신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2020년 인도되면 로테르담 항에서 벙커링 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0년까지 로테르담 항은 대형선 LNG 벙커링을 위한 설비를 갖추 예정임
 - 현재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은 출항 전에 왕복 운항에 필요한 LNG 연료 저장공간을 갖추도록 제작될 것임
 - 따라서 주요 벙커링 항만인 로테르담 항 이외의 항만에서의 벙커링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할 것임
- 2017년 말 CMA CGM은 2020년 인도예정인 LNG 추진 22,000 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함
 - 세계 최대규모의 컨테이너 선이며 동시에 LNG 운반을 제외하고 가장 큰 LNG 추진선임
 - LNG 추진 신조선은 기존 선박에 비해 그 금액이 1/3 가량 비싸지만 LNG 연료가 기존 벙커유보다 싼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비용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CMA CGM은 Total Marine Fuels Global Solution과 연간 약 30만mt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약 63일에 달하는 22,000 TEU 선박의 유럽-중국-유럽 왕복 운항에 다량의 가스 연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Total과 MOL은 CMA CGM이 2020년부터 운항할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 벙커링 할 LNG 벙커링 선박을 공동 발주했음
- CMA CGM의 계획은 IMO 규제에 의해 현행 선박유 황함량 3.5%를 2020년 이후 0.5%로 낮추는 저유황유 이용 규정에 부합함
 - CMA CGM은 2020년경 혹은 2020년 이후에는 LNG 연료가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MOL은 LNG 레디션을 신조하고 있음
 - 20,000TEU 컨테이너 선인 MOL Triumph는 추가 장치를 통해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 되었음
- CMA CGM은 비록 금번 LNG 추진 신조선의 벙커링을 로테르담에서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에서 벙커링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여타의 제안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CMA-CGM CEO가 밝힘

■ 참고자료 : <https://platts.com> 2018.6.8.

김정현 전문연구원

051-797-4666, jh-kim@kmi.re.kr